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3.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2월의 첫 주일 아침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세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세상의 작은 물결에도 흔들리는 우리들이오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대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련과 고통이 끝도 없이 다가와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속된 생을 성화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느라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눈빛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달콤한 가짜 행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벰전5:6-7 인도자

♠ 교 독 문 10. 시편27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13. 먹보다도 더 검은 다함께

성경봉독 I. 마4:1-11 인도자

II. 갈6:6-10 김용진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먼저 하나님께 잘 보여라 김재흥 목사

II. 입춘에 하는 다짐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53.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며, 평화와 사랑의 씨를 심는 일에 진력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다함께 : 아멘. 이제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섬기며 살겠습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월례회/회장 및 인도자	2월 기도의 밤
찬양인도 : 장성호 선생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안홍숙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용진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김용길	김훈동	배삼순	박효선	백혜숙

신앙의 용사

1)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한 번 택하신 자는 쉽사리 방임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영리한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는 듯,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부르신 자를 어루만지고 주무르며 때리며 달래어 찾아내고 깨워 일으켜서 여호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어, 멸시하던 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시키고야 만다. 누가 여호와보다 더 강한 자일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현존자(現存者)일까.

2) 죄의 결과는 청산하지 않고 말소되는 법이 없다. 죄란 과연 실존한다. 그것을 범한 자를 어디까지든지 추궁하여 항복케 하시는 것이 여호와와 성격이신 듯하다. 범죄자 자신에게 그 청산을 강요하실 때는 오히려 참을 수도 있으나, 무고한 가족·친척·친구에게 그 대속의 요구가 임한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암흑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인의 눈에서라도 참회의 눈물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듯하다. 한 집안의 호주, 민족의 주춧돌을 치시는 일을.

3) 믿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거니와 믿으려거든 신앙을 제일주의로 믿고 살아야겠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된다. 신앙은 신앙의 법대로, 장사는 상업 이익의 법대로 한다면, 신앙으로 상업 혹은 그 밖의 직업을 삼키지 못할진대 공연한 고민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저에게 화가 미치는 듯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아들, 첫 추수, 그 밖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헌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크거나 작은 일에 모조리 신앙 제일주의의 생활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주일에 성서연구회에 참석치 못한 원인이 토요일 저녁의 세상일에 있었거든, 적어도 토요일 오후부터는 성역으로 정해 놓고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속된 일에 물들지 말기를 경계할 것이다. 일요일을 아무렇게 보내고도, 대부분은 유희 기분에 취해서 보내고도, 자유 신앙이 성립되는 줄로 아는 것은 단지 청소년이나 품는 사상이요, 꿈이다. 희생 없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신앙으로 세상을 살고자 선택하였다면

속된 유행을 단절하여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 일요일을 영(靈)의 일에, 생명의 일에, 영원한 일에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면 토요일을 예비해야 하겠고, 토요일의 예비를 완전히 하려면 나날의 생활을 신앙 제일주의로 돌진해야 한다.

4) 우리의 집회를 매우 거룩한 것으로 알고서 조금만 실수해도 다시 참석할 수 없는 자리인 줄로 알아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고마운 일이다. 우리는 엄격한 규약을 정해 놓고서 그것을 지키기에 적잖은 노력을 하여 왔다. 끊기 어려운 것도 거절했고, 행하기 괴로운 일도 단행했다. 그러므로 우리 집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안 것은 잘 알았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오만한 자, 이리의 무리 같은 자들을 물리치고 참된 양떼를 옹호하고자 하여 마지못해 시행한 일이고, 우리의 진심은 그렇게 가혹한 것도 아니요, 그렇게 거룩한 것도 아니다. 그 마음에 고집이 있고 그 행위가 방약무인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도 어디까지든지 강경하게 가혹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시각에 늦었고 법도에 어그러지고서 그 가슴에 고통과 회한을 금치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언제든지 좋으니 우리에게로 다시 오라. 강한 자와 의인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좋다. 스스로 약한 줄 알고서 비탄하는 자, 스스로 추한 줄 알고서 부끄러워하는 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자신을 여지없는 깨진 그릇으로” 알고서 자살까지 결심한 자, 그들은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우리 집회는 원컨대 이러한 인생 행로에서 피곤한 자들이 숨쉬는 곳이 되고자 한다.

5) 유혹이란 것이 확실히 있고 또 위험한 것이다. 천만 의외의 사람들이, 신앙의 용사로 자타가 승인하던 이들이 쉽사리 거꾸러지며 자업자득에까지 이르는 사실이 하나들이 아님을 알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한 구절을 주기도문 중에 넣어 주신 주 예수의 주도면밀하심과 자애하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독실한 신자인 형제자매여, 제일 군센 십자군의 형제자매여, 오늘도 비사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1940년 1월) (김교신 선생님께서 자신의 불신과 교만을 괴로워하는 어느 젊은이에게 보낸 글 중에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 발췌)

다름을 기뻐하라

-김현옥

우정을 처음 발견했을 때
거리로 뛰어나가 소리치고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나와 닮은 그 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를 감싸준 그 누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는
내 가슴이 흥분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 안에 다름의 고독이 있다는 걸 알아냈을 때는
서러움의 눈물이 피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같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절망으로 시들어버릴 뻔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속삭이셨습니다.

“아이야, 서로 다름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고 기뻐해라!”

그분은 같은 얼굴을 모두 다르게 만드시는
요술쟁이 손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유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장영숙 방문성 박해경 김지윤 김일랑 이은옥 맹은선 박규석
 박경선 박홍재 방민 임영 정경례 장재영 김재영 홍복선 노용래
 차혜심 이광용 형인순 권호천 배삼순 김기석 김희우 권미숙 최미선
 박성수 김애경 임주빈 최현옥 안종일 정원주 박영숙 장성호

월정헌금:

권미정 김인걸 문영혜 박어진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이동천
 이소순 이해동 이희균 김영한 하정석 이명희 노미향 권순 윤정화
 이호원 김남종 오복순 이성범 최철수 광관희 김극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준호 광혜자 김애경 왕성환 강순배 오진훈 노순옥
 송동준 한선희 임영 정경례 김종철 무명1

생일감사헌금: 한진실 이성의 백승민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양재성 한상의 정영선 김철수 백승민 김준호 광혜자 배근수
 (누계: 28,6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연 합 속 회	차혜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문인옥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광관희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다메섹	박해경	최영혜	박해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졸업감사예배** :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예배가 오늘 11시에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월례회** : 각 선교회의 월례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2층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부** :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4. **기도의 밤** : 2월 7일(수)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 **봉사** : 종묘 앞 급식 봉사가 7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있습니다.
6. **환영회** : 다음 주일(11일) 오후 2시부터 신임원 환영 윗놀이를 합니다. 모처럼의 사귀는 시간에 즐겁게 동참하십시오.
7. **작정** :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셔서 정성껏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8. **주차** : 주일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교회 마당에 세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9. **신앙실천** :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날을 가족들과 상의하여 정해보십시오.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정신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이봉옥 (남편 추모), 장혜숙 (생일),
오현정 (어머니 추모)

< 새교우 소개 >

2706 김보람 소속: 청년부
2707 김보미 소속: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